

2025 국악창작곡개발 - 제19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 심사 결과 안내

<2025 국악창작곡개발-제19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5월 15일(목)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선 경연대회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회에 참가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심사개요

- 일시/장소 : 2025년 5월 15일(목) 19:00 / 국립국악원 예약당
- 심사내용 : 본선에 진출한 10곡의 국악창작곡 실연 심사
- 심사위원 (*가나다순)

번호	이름	주요 프로필
1	강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 2018 평창장애인 동계올림픽 음악 총감독 • 2021 제40회 대한민국작곡상 수상
2	박애리 (심사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춘향가) 이수자 • 제46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대통령상) 수상
3	신영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배우 • <레베카>, <맘마미아>, <명성황후>, <모차르트> 등 다수 뮤지컬 작품 출연 • 2023 제17회 골든티켓어워즈 뮤지컬 여자배우상 수상
4	이상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러머, 프로듀서 • 2008 제2회 자라섬국제재즈콩쿨 1위 • 깍스 드러머, 한인최초 뉴욕 블루노트 아시안 최초 메인무대
5	이영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남대학교 국악전공 교수 • 전통창작음악집단 '4인놀이' 동인 • 월드뮤직그룹 'VinaLog' 대표
6	이한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어송라이터, 밴드 불독맨션 리더&보컬 • 1994 MBC 대학가요제 대상, 2007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노래' 선정 등 • 국악방송 라디오 <창호에 드린 햇살> 진행
7	정덕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평론가, 칼럼니스트 • 국악방송, MBC, JTBC 시청자위원 • 백상예술대상 등 심사위원

- 심사항목: 대중성(30%), 음악의 완성도(30%), 독창성과 창의성(20%), 국악적 요소의 반영(20%)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점수는 최저 70점, 최고 99점으로 상·하한 점수 규정
 - 팀별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위원 투표를 통해 결정
 - 심사회피제도 시행

□ 심사결과

구분	팀명	곡명	시상내역
대상	오름새	떼루(Together)	국무총리상, 상금 1천 5백만원
금상	JOYY	건드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상금 8백만원
은상	무던MU:DERN	무던히	국립국악원장상, 상금 5백만원
은상	판도라(PANDORA)	대장장이 신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5백만원
동상	차잔밴드	가녀린 아이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3백만원
동상	비랑(飛浪)	어둑시니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3백만원
장려상	창작민속악그룹 '화운'	수류가(水流歌)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2백만원
장려상	삼산	21C 한국음악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2백만원
장려상	METALISM	낱고 녹슨...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2백만원
장려상	프로젝트 금	사(絲)물놀이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2백만원

□ 주요 심사평

이름 (가나다순)	주요 심사평
강상구	<p>국악퓨전 음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있는 '21c한국음악프로젝트'가 19회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1회부터 지금까지 많이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흡족한 경연 대회였습니다.</p> <p>독특한 아이디어와 음악적 구성이 좋은 반면, 국악적 어법이 미흡한 곡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음악적 완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p> <p>대중성이 조금 미흡한 곡들도 음악적 완성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 한국 창작 음악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고 발전되리라고 기대됩니다.</p>
박애리 (심사위원장)	<p>오랜 시간 갈고닦아 온 전통음악을 양분 삼아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대중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p> <p>이 시대의 음악어법을 찾아 전통을 지키고자,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고민하는 젊은 예술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p>
신영숙	<p>신선하고 독창적인 무대가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의 도전이 인상적이고 희망적입니다. 다양한 음악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p> <p>다소 아마추어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되고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길 바랍니다.</p> <p>더불어 다른 장르(뮤지컬)까지 다양하게 극적으로 시도하길 희망합니다.</p>
이상민	<p>창작활동은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땀을 요구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경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팀별로 너무나도 다른 색을 가지고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향해 열정을 쏟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p> <p>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에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p> <p>모두들 수고하셨고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p>

<p>이영섭</p>	<p>마치 무지개를 본 듯한 느낌의 다양한 색깔의 음악을 만났습니다. 참가자들의 독창적인 음악적 시선, 창조적 노력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기악 음악으로 도전한 팀들과 노래를 병행하는 팀들, 밴드 편성의 노래팀 모두 상상했던 것보다 기발하며 독특한 음악적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무대에서 많은 활동을 이어나가며 팀 마다의 음악적 내공이 쌓이길 기대합니다.</p>
<p>이한철</p>	<p>참가팀들이 보낸 수개월간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들을 감사히 잘 듣고 보았습니다. '21c한국음악프로젝트'는 여러 음악 경연들 중에 가장 독창적인 음악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젝트이고, 이번 제19회 대회도 당연히 그러했습니다. 시도되지 않은 악기들의 조합, 여러 대중음악 장르와 경계를 허무는, 그러면서 전통을 지나치게 해체시키지 않은 멋진 결과물들과 마주했습니다. 수상 결과와 무관하게 자신들만의 대체 불가능한 음악 세계를 꾸준히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p>
<p>정덕현</p>	<p>'21c한국음악프로젝트' 본선을 통해 한국음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악 본연의 색을 지키면서도 현재와 호흡하기 위해 젊은 국악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가 느껴졌습니다.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부터 참신하고 발랄한 재해석까지 풍성한 수확이 있는 경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21c한국음악프로젝트'가 국악의 미래를 열어가는 장이 될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p>

□ 문의 :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운영사무국 (02-300-9973, 21cproject@igbf.kr)